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호 【루계 제25158호】 주체105(2016)년 1월 15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강력한 사상공세로 올해의 총진군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조선혁명은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켜 성스러운 대업을 이룩해나가는 혁명이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기적창조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의 승리도 강력한 사상전, 선전선동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대한 전당적인 학습열풍과 백두산대국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시작된 ２０１６년의 진군길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당이 제시한 올해의 투쟁목표와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도 사상공세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그 위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새로운 승리와 전변을 이룩해나가자는것이 당과 혁명의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상사업에 혁명의 승패, 나라의 전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혁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사상은 혁명의 원동력이다. 사람들에게 고귀한 정신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그들의 사상정신력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혁명이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해나가게 된다.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투쟁과업이 나설수록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만사를 풀어나가는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원칙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일심단결된 정치사상강국, 수소탄까지 보유한 최강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노도처럼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백두산혼련열풍,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현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사상전의 포성, 선전선동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며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최대로 분출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모든 전선이 기운차게 내달리게 되고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되는것만큼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당중앙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며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백배해주는 원동력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피끓는 심장은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더욱 굳건히 이어져있으며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전체 인민이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며 영광의 당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대중적영웅주의를 떨쳐나가는것이 우리 혁명대오의 참모습이다.

령도자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을 안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천만적총진군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 풍모의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가야 한다. 지난해 백두청춘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온넋과 심장을 불태우며 백절불굴의 기상과 영웅적투쟁으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만년언제를 단숨에 일떠세운 불멸의 기적은 당의 사상과 의지로 맥동치게 백두전역을 들었다놓은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참신하고 박력있는 사상사업을 벌려나갈 때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상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에 결정적타격을 가하고 혁명의 보루,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공격전이다.

올해의 총진군은 치렬하고 첨예한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을 동반하고있다. 천지풍파가 밀려오고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절대로 버틸수 없는것이 혁명적신념이며 계급적원칙이다.

혁명의 승리는 사상의 승리이며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은 곧 사상의 우월성과 위력이다. 백두밑림에서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늘도 사회주의기치로 힘차게 휘날리고 있는것은 우리가 시종일관 사상을 중시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해 위대한 백두령장의 발걸음따라 수천수만의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인 신천박물관을 찾고 또 찾은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보위정신, 조국사수정신은 추호도 끄떡없다는 투철한 신념의 과시이다.

사상진지가 굳건하면 반제군사전선도 경제문화전선도 금성철벽이다. 우리는 사상사업에 혁명의 승패, 사회주의의 전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혁명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혁명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기어이 말살하기 위하여 피를 물고 달려드는 지금이야말로 사상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제국주의의 반사회주의전략에 총파산을 선고하여야 할 사상전의 시대이다.

오늘의 사상공세는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는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가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기 위해서는 천만군민의 앙양된 기세를 최대로 분출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영웅적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강력계일주의를 폭발시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의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 군민이 힘을 합쳐 세기를 주름잡는 대비약속도로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천지개벽의 장엄한 화폭은 온 나라를 들었다놓은 강력한 사상공세, 화선식정치사업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올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해나가는데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외에 다른 묘술이란 있을수 없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아지는것만큼 우리의 힘찬 진군속도가 빨라지고 대고조전역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되며 세상을 들었다놓는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이자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다.

주체의 사상론, 이 위력한 무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신조, 령도방식에는 추호의 드팀도 없다.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사상의 힘, 사상사업의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 떨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앙양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당이 제시한 5대교양에 화력을 집중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5대교양은 우리 군대와 인민, 청년들을 선군시대의 열혈충신, 열렬한 애국자, 불굴의 투사,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 필수적인 사상교양이다. 5대교양은 우리 당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우리는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중심에 놓고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투철한 사회주의신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참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중차대한 사업인 선군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자강력제일주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사상전의 불길,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마련된 강력한 선전선동수단과 력량, 풍부한 사상사업경험이 있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우리는 １９７０년대처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북소리, 진격의 나팔소리를 높이 울리며 총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과 전투적랑만을 북돋아주며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을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작들, 당문헌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이미 마련되여있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화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군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시간과 장소,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선전선동사업을 기동적으로 능숙하게 벌려야 한다. 모든 교양, 강연, 선동망들이 총동원되여 대중의 심장속에 당의 사상과 방침, 로선과 정책을 깊이 심어주며 막장과 포전, 일터와 마을, 생산현장 그 어디서나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포성을 순간도 멈춤이 없이 계속 힘차게 울려나가야 한다.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언론인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힘있게 선전하며 당 제6차대회를 빛내인 전세대 기자, 언론인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적극 따라배워 붓대와 마이크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권위,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소리높이 만방에 떨쳐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사상의 기수, 혁명의 척후대, 진군의 나팔수가 되여 일편단심 당을 받들어온 전세대 예술인들처럼 백옥같은 충정과 혁명적신념, 진취적인 창작기풍과 지칠줄 모르는 창조본때로 시대의 명작들을 팡팡 만들어냄으로써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정치적,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꾸려놓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와 평천혁명사적지참관, 신천박물관참관 등을 의의있게 잘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선전, 구두선동, 직관선동, 예술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선전자료와 선동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진실성, 과학성, 친절성이 보장되게 잘 만들며 강습이나 강연, 해설담화를 하여도 품을 들여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하여 사람들이 당정책을 자기 집안일처럼 환히 알게 하여야 한다.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위력한 선동방법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시대의 전형들을 키우고 그들이 대오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적극 추동하며 현실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적극 찾아내여 일반화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사상의 무기를 메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정치사업은 사상사업부문 일군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모든 일군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자기에게 맡겨진 중요한 혁명임무로, 혁명과업수행의 첫 공정으로 삼고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현장정치사업, 화선식정치사업은 우리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군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그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기대였이건 논두렁이건 실험실이건 갑판이건 그 어디서나 현장정치사업, 대중정치사업을 호소성이 강하면서도 허물없이 통속적으로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강연을 한번 하여도 기름냄새, 흙냄새가 나게 하고 선동을 하여도 대중의 피가 끓게 하며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함으로써 인민들이 당정책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당선전일군들은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 언제나 진격의 앞장에서 화선식선전선동의 북소리, 혁명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리며 모든 공정과 계기마다에서 구수하고 격식없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속에 당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야 한다.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종전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문제들을 풀수 있은 커다란 성과는 모든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갈 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각급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특히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들의 교양문제가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 청년미풍선구자들의 모범을 귀감으로 하여 청년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꾸준히 심도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상혁명의 불길높이 사상전, 선전선동전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며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4돐을 계기로 여러 나라에서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바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총비서,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인민당 고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영국신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전국지도자,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무지개인민련합 총비서, 말리련대성과 정의를 위한 아프리카당 집행위원회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찌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찌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브라질자유조국당 전국위원장, 칠레공산당(프로레타리아행동) 중앙위원회 제1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관계비서, 에찌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로씨야이고리 모이쎄에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야민속무용단 지배인, 로씨야네무성 내무군아까데미야협주단 단장,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먄마, 방글라데슈, 수리아, 스리랑카, 캄보쟈, 타이,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마쟈르, 벌가리아, 벨라루씨, 스위스, 스웨리에,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리비아, 말리, 베닌, 세네갈, 적도기네, 민주꽁고, 뚜니지, 우간다, 에찌트, 에티오피아, 도미니까, 메히꼬,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카나다, 꼴롬비아, 페루, 에꽈도르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전문과 편지를 보내여왔다.

전문과 편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은 천재적인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걸출한 령도자, 위대한 정치가,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였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존함은 사회주의수호의 승리의 표대로 빛나고있으며 위대한 태양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과 편지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문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4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그들은 청년동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의 혈통, 신념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키우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정치로 조선청년운동을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을 일떠세우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이 온 세상에 떨쳐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백두산대국의 청년전위답게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증 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이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았다.

주체조선의 양양한 전도가 만천하에 과시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은정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경축행사대표증이 그들에게 수여되였다.

대표증에는 존엄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강성국가건설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국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대표증수여식이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청년중시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언제나 청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행사대표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은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경축행사대표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으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을 안아온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조선청년들의 불굴의 기개와 혁명적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는 대표증을 받아안은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새 세대들을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이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혜산 출발

【혜산 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시작되였다.

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4일 혜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림종환이 발언하였다.

그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장엄한 뢰성으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이 온 누리에 높이 떨쳐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은 지금 당의 정치보위자들로 살며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선군령장의 발걸음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충정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전통의 믿음직한 수호자, 철저한 체현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혁명전적지의 구호문헌 한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보위하며 행군 전과정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투쟁해나가는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투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하며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오늘의 행군길을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힘차게 이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대원들은 최고사령관기와 답사행군대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력사의 땅 보천보를 향하여 행군을 시작하였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김정은

당중앙을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리

시간이 흐르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게 될 력사의 그날을 향하여 초침소리는 높아가고있다.

분분초초가 더없이 귀중하고 책임적인 우리 조국의 시간이다. 하기에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천만군민은 결사관철의 맹세로 가슴을 불태우며 당이 정해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의 장쾌한 폭음으로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우리 조국!

정말 우리 조국에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것이 얼마나 많은가.

천만군민모두의 기세는 충천하고 용기는 백배하며 5월의 그날을 바라보는 눈빛마다에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또다시 조국력사에 금문자로 승리를 아로새기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위대한 사상과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굳게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큰 재부입니다.》

지나온 우리 혁명의 길에는 그 언제나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지만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난관을 박차고 진격속도를 높여왔으며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 위대한 승리만을 아로새기였다.

비결은 무엇이던가. 일심단결이였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였고 필승의 무기였다.

혁명의 년대들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뜨겁다.

단결로 시작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일제를 몰아내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조선사람들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단결하여 투쟁하는 길만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해방후 개선광장에 울려퍼진 단결의 호소가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 싶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열정에 넘쳐 연설하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은 숭고한 그 뜻을 받들고 한덩어리로 뭉쳐져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섰으며 일심의 위력으로 부강한 새 민주조선건설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전세계에 과시한 전쟁이기도 하였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횡포한 제국주의날강도들을 쳐물리치고 전승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군대와 인민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며 그 믿음과 사랑에 목숨바쳐서라도 보답하려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결사의 투쟁정신이 있었기때문이다.

수령과 군민이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내려는 일념으로 뭉쳐있었다. 하나로 뭉쳐진 그 억센 힘앞에 미제의 기술적우세가 맥을 못 추고 허물어졌다.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더듬는 우리의 심중에 소박한 한 농촌녀성의 말이 떠오른다.

《수상님, 헌 솜옷을 입은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헌옷을 입었어도 수상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비단옷을 입은것보다 더 기쁩니다.》

미제의 폭격에 남편도 가산도 다 잃고 혼자서 자식 셋을 키운다는 녀성농민, 청산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솜저고리가 다 해진것을 보시고 가슴아파하시자 눈물을 머금고 터친 그 녀성의 진정이였다.

우리 수령님만 계시면 고난도 시련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기어이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는 농민들의 이러한 철석의 믿음에서 출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농업협동화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그렇듯 방대한 사회적변혁을 짧은 기간에 이룩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따라나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에 의하여 이 땅 그 어디서나 전설의 천리마가 네굽을 안고 날고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 솟아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일심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가는것은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근본의 근본으로 된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관점과 립장이였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 …

세상에 없는 그 선군혁명령도의 길들을 헤아려보는 우리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왜 끝없이 젖어드는것인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어야 한다시며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의 세계를 너무도 잘 알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믿고 따랐으며 그이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것을 례상사로 여겨왔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수령과 인민사이에 오가는 정과 열, 마음과 마음의 감동적인 통일이였고 단결이였다.

언제인가 선군혁명의 준엄한 나날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더듬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길을 달릴 때면 이른새벽 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쓸면 태성할머니생각이 나군 한다, 지금은 온 나라 인민이 태성할머니처럼 되였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천만군민모두가 우리의 일심단결은 위대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결정체라고 말한다.

또 한분의 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조국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인 일심단결이 날을 따라 더욱 굳건해지고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산악같이 일떠서 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온 나날에 더욱 굳건히 다져진 우리의 일심단결,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매혹과 절대적인 신뢰심으로부터 출발한 순결한 사상감정의 결정체이며 세상이 열백번 변하여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원수님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드놀지 않는 사상감정의 분출인것이다.

언제나 인민들과 병사들속에 계시며 사랑과 정으로 일심단결의 만년성새를 억척같이 다져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군군인들을 자신의 제일전우, 제일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찾아 사선의 고비도 헤치시며 천만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반제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우리 원수님,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평범한 로동자가정, 어린이들과 전쟁로병들, 청년들, 혁명가유자녀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도 한점의 그늘없이 따사롭게 비치고있다.

일심단결의 력사가 더욱 뜨겁게 아로새겨진 나날들에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의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의 모습도 있다. 다치면 터질듯 한 전쟁분위기가 무겁게 떠도는 때에 위험천만한 최전연들을 련일 찾으시며 사랑하는 전사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여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만세!》의 환호를 올린 군인들과 군인가족들,

과연 어느 나라 력사에 이런 눈물겨운 화폭이 새겨진적 있었던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속에서나 천이면 천, 만이면 만이 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자리에서 그들과 꼭같은 화폭을 펼치고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본 한 외국인은 격정을 금치 못하며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열병식은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풍당당하고 장엄한것이였다.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는 열병대오의 모습에서 령도자에 대한 군민의 강렬한 경모심을 느낄수 있었다.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조선의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렇다. 지난해 10월의 경축광장에 펼쳐진 격동적인 화폭들은 핵폭탄을 터뜨리고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것보다 더 큰 위력으로 누리를 진감하였으며 일심단결과 총대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 투쟁하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정녕 두려울것이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주체혁명위업의 천만년미래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수소탄을 보유하고있는 우리 조국에는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필승의 무기를 가지고있는 백두산대국은 불패이며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은 최고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이룩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영원히 한길을 갈것이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본사기자 김철혁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재부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관점은 인민대중이야말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결코 몇몇 사람들에게 의거하여 혁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혁명과 건설의 주인, 그 직접적담당자는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철저히 광범한 인민대중,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시고 아껴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그이의 철의 의지가 맥박치는 말씀이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참다운 인민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철의 대오를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천만의 심장속에 간직된 글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호 언제 전망대지구에는 불멸의 글발이 새겨진 친필비가 있다.

백두산칼바람에 돛을 달고 주체혁명의 불변의 침로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백두대지에 뿌린 청춘들의 애국충정의 땀방울을 당과 조국과 인민은 영원토록 기억할것이라고 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의 글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응축되여있는것인가. 어찌 이들뿐이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과 군인들, 청년학생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리고 사랑의 친필을 받아안는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격동적인 현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과 천만군민이 한식솔을 이룬 혼연일체의 생동한 화폭들이다.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간직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군인들과 인민들과 함께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계시는 모습이시다.

때로는 진지에서, 때로는 푸른 바다우에 떠있는 함선의 갑판우에서 그리고 때로는 군인들을 한사람한사람 곁에 부르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강성국가건설의 동음울리는 곳마다에서 그이께서는 허물없이 안겨드는 인민들과 어울려 력사에 남을 기념사진을 찍으신다.

지난해 4월 백두산칼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백두산정이 어려온다. 빨찌산 김대장과 항일의 전우들마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겹겹이 에워싸고 둘러앉은 전투비행사들과 어깨겯고 력사에 길이 빛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고사령관과 평범한 군인들의 심장과 심장들이 하나가 되여 고동친 그날의 모습, 바로 여기에 수령결사옹위로 불타는 천만군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원천이 있고 우리 조국이 왜 그토록 굳건한가에 대한 대답이 다 담겨져있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리. 본사기자 찍음

동지애의 깊은 뜻을 새겨주시며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혁명입니다.》

총진군길우에 힘차게 울려퍼지는 《동지애의 노래》와 더불어 만단사연들이 어려온다.

어느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애국헌신의 세계를 펼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시 휴식하시게 된 기회에 일군들에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몇몇 일군들이 먼저 노래를 부른 후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히 기타를 드시고 자신께서는 《동지애의 노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시며 기타선률에 맞추시여 노래를 부르시였다. 일군들도 따라불렀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노래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데서 가는 길 험난해도 시련의 고비를 함께 넘고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여야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한번 다진 맹세를 절대로 변치 말아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선군혁명천만리길우에 뜻깊게 울려퍼진 《동지애의 노래》에는 조선혁명의 력사, 동지애의 력사가 비껴있다.

우리 당의 태아이며 씨앗인 첫 당조직의 명칭도 《건설동지사》로 하시고 이역만리 오두막에서 너는 김혁 나는 성주라는 위대한 동지애의 글발을 새겨주신 못 잊을 그날과 더불어 한평생을 동지애의 력사로 빛내이신 우리 수령님!

성스러운 혁명령도의 나날 혁명의 길에서는 동지보다 더 가깝고 귀중한 사람은 없다고, 속담에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하였지만 천만금으로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이고 동지의 사랑이라고, 혁명의 길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고락을 함께 하는 전우가 바로 동지이라고 하시며 동지애의 화폭을 펼치신 우리 장군님!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감동깊이 엮어져 빛나는것이 바로 동지애의 력사이다.

백두의 성스러운 붉은기높이 준엄한 역경을 부시며 헤치시는 혁명의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은 바로 동지에 대한 말씀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지, 전우라는 말은 상하관계나 나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사상과 뜻, 순결한 정과 의리로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들사이에 불리워지는 말이라고 하시며 동지애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새겨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우리 혁명력사는 동지애의 력사이라고, 우리는 동지애로 시작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동지애로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새해 진군길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되여있다.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것이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것입니다.

위대한 그 뜻을 안으시고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력사적진군길우에 열렬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 동지애의 력사를 련면히 펼쳐가신다.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피끓는 심장을 이어놓고 그이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당을 따라 총정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인선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창간하시여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을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혁명적출판보도물!

온 나라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고있는 때에 우리는 《새날》신문창간 8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간된 혁명적출판물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0년대 후반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청년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하는 많은 혁명조직들을 내오시였다.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렬이 확대되는 조건에 맞게 광범한 대중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줄수 있는 혁명적출판물의 필요성을 깊이 느끼시였다.

주체17(1928)년 1월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열성자모임을 여시였다.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새날소년동맹이 무어진 후 한해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총화하시고 신문을 내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송일대의 소년들과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더 활발히, 더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자면 학습토론회나 연예선전대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때문에 동맹이 정치선전사업을 잘해나가자면 동맹원들과 소년들, 각계각층 군중들에게 사상적량식을 줄수 있는 신문을 내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였다.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창간하게 될 신문의 제호를 어떻게 다는것이 좋을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모임참가자들속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날소년동맹자체가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날을 지향하는 소년들의 혁명적조직인것만큼 새날이라는 머리글자를 따서 《새날》이라고 하자고 교시하시였다.

새날!

바로 여기에는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2천만동포를 불러일으켜 기어이 우리 민족에게 조국해방의 밝은 서광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굳은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신문의 편집내용과 편집형식 등 《새날》신문창간호를 편집발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회의가 있은 후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날》신문창간호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시절의 혈기와 젊음이 그리워지는 때가 많다고,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기에서 돌도 없는 행복을 느끼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주체17(1928)년 1월 15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마침내 《새날》신문의 창간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

《새날》신문의 창간은 선행시기 출판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출판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출판물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출판물의 억센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신문발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적들의 감시와 탄압이 우심한 속에서도 신문편집방향으로부터 인쇄와 배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신문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새날》신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강도적침략과 야수적인 식민지략탈정책을 신랄히 폭로규탄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단결된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적극 선전하였다.

그리고 계급사회의 근본모순과 지주, 자본가놈들의 착취적본성을 폭로하는 글들과 인류사회발전사를 체계적으로 게재하였다. 신문은 무송시내를 비롯하여 넓은 지역에 배포되였다.

《새날》신문의 첫 포성에 이어 얼마나 많은 신문, 잡지들이 발간되였던가.

조선혁명의 핵심골간을 키우고 광범한 대중을 무장투쟁준비사업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볼쉐위크》와 《농우》,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을 비롯한 수많은 신문, 잡지들.

잊을수 없는 그 나날 모든 혁명적출판물들의 성격과 사명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편집방향과 기사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어 혁명적출판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을 강도 일제를 격멸하는 성전에로 불러일으키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은 오늘도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멀고 험한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출판보도기관의 일군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총대와 함께 사상의 위력, 붓대의 위력을!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의 혁명적출판보도물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마중해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의

숙소방문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14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 대표들의 숙소를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주체의 해강국의 위력을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에 산악같이 일떠선 격동적인 시기에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는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환희가 숙소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당, 무력기관, 내각 일군들이 경축행사대표들을 만났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특기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된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우리 당을 따르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며 애국충정의 고귀한 피땀으로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역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와 위훈을 창조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표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들은 이 땅에 솟아오른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경제강국건설의 빛나는 성과들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고 하면서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 청년문화를 계속 빛내여나갈것을 당부하였다.

대표들은 우리 청년들을 내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어깨겯고 함께 나아갈 미더운 동지, 전우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일군들이 해설자, 선전자가 되여 대중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얼마전 현장으로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장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에 대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진행한 해설선전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지금 농장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워갈 맹세를 안고 파일나무비배관리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영일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서흥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는 당조직들가운데는 서흥군당위원회도 있다.

이곳 군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로선을 틀어쥐고 청년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청년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모두가 우리 당의 사상적 혈통, 신념의 피를 순결하게 이어받아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전위투사, 선군청년영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년초부터 이곳 군당위원회의 잡도리는 다르다.

군안의 단위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에 비추어 한해의 전투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 열띠게 벌어지던 얼마전의 일을 놓고보자.

군당위원회는 위원회안의 모든 부서들과 아래단위 당조직들이 청년동맹사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사색들이 모아지고 청년동맹사업을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이 올해의 첫걸음부터 기백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비서 림성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추억하듯이 군당위원회에서는 최근시기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경험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가 발표되였던 때의 일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격동된 심정을 안고 로작을 자자구구 새기며 당사업실천에 구현할 방도를 찾던 책임비서 정연성동무의 가슴에 큰 충격을 주며 안겨오는 글발이 있었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사실 군당위원회에서는 청년중시에 대해 강조도 많이 하고 대책들도 적지 않게 취했었다. 하지만 주로 주판부서에 국한되여있었다. 다른 부서들에서는 청년동맹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고있었다. 그러다나니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에게 현시기 청년동맹사업이 당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을 앞세웠다. 누구나 나라와 민족,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청년문제를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청년들과의 사업에 발벗고나서도록 이끌었다.

주성철동무를 비롯한 군당책임일군들은 자신들부터 청년동맹사업을 도와주는데 앞채를 메고나섰다.

어느 한 중요계기점에서 군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을 의도적으로 내세워주어 그들이 청년사업을 활개치면서 전개하도록 한 사실, 뒤떨어진 청년들과의 사업을 옳은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청년동맹일군들을 이끌어준 사실을 비롯하여 군당책임일군들이 청년사업에 품을 들인 사실들은 많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기 위한데도 큰 힘을 넣었다.

군에서 당창건 일흔돐이 되던 지난해에 전투목표로 내세운 군학생소년회관 개건보수공사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책임일군들은 이 어려운 공사를 청년동맹에 맡기자고 하였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처럼 방대한 공사를 과연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컸던것이다.

그러나 책임일군들은 어려운 일을 해제끼는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억세게 키우고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여줄 결심밑에 대담하게 그 일감을 통채로 맡겨주었다. 그리고 학생소년회관 개건보수공사를 통하여 청년들이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고 청춘의 힘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싹들을 제때에 찾아 적극 일반화해나갔다.

언제인가 군당책임일군은 청년사업을 잘 도와주고있는 한 농장의 당일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였다.

그 일군은 청년작업반원들에 대한 요구성이 높았다. 그들이 맡은 일에서 혁신의 기발을 높이 휘날려가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자주 찾아 일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힘있게 벌리군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각별히 관심하였다. 청년작업반건물들을 빈틈없이 꾸려주었는가 하면 늘 청년작업반원들에게 친어머니와도 같은 사랑과 정을 기울이였다.

그러니 청년들이 작업반을 정든 고향집처럼 여기고 랑만적으로 생활하며 언제나 혁신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게 된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그 일군의 소행을 일반화하는 한편 모든 일군들이 청년들과의 사업을 사랑과 정을 부어주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갔다.

품을 들인것만큼 결실이 컸다.

지난해에도 권영오, 김국철동무들을 비롯한 군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은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능동성을 발휘하면서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부쩍 높여나갔다. 그에 따라 군안의 청년들속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서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군당위원회는 바로 이런 좋은 경험을 살려 올해에도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큰 힘을 넣기로 하였던것이다.

군당위원회의 지도가 더욱 강화되자 올해 첫 전투에서부터 청년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다.

군안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은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훌륭히 키워나가는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참신한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리정수

청년돌격대활동과 실효

천리마구역 고창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청년강국의 위용이 온 누리에 떨쳐지고 청년들의 지위가 비할바 없이 높아진 오늘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서고있다. 천리마구역 고창리당위원회의 사업을 놓고 느끼게 되는것도 바로 이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리당위원회가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시한것은 청년돌격대활동이다.

그러면 리당위원회가 왜 여기에 큰 힘을 넣게 되였는가.

하나의 실례를 통해 이 문제를 분석해보자.

지난해 농장에 중요한 공사과제가 제기되였다.

산기슭의 암반을 까내고 많은 토량을 처리해야 할 방대한 공사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이 공사를 청년들에게 대담하게 맡기기로 하였다.

곧 청년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다. 하루종일 함마질을 하느라면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였고 정대를 잡았던 장갑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해지군 하였지만 모두가 기세충천하여 일손을 다그쳤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공사속도는 점차 처졌다. 련일 암반을 까내는 어려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청년돌격대원들이 몹시 지치였던것이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청년돌격대의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이 방대한 공사를 끝내기 힘들것 같다, 이제라도 작업반별로 경험이 있고 힘쓸을 쓰는 사람들을 골라 공사의 주역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리당비서 최명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리당위원회가 이 공사를 청년돌격대에 맡긴것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단련시키고 청년집단을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꾸려자는데 있었다. 청년돌격대활동을 단순히 긴장한 로력문제해결의 방도로 여기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도 청년돌격대활동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게 해야 한다.

문제를 이렇게 본 리당위원회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튿날부터 전투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투장에 힘있는 구호들과 이동식전투속보판들이 전개되였다. 기동예술선동대의 북소리가 전투장을 들썩이게 했다. 리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치사업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휴식참에는 즐거운 오락회도 진행되였고 푸짐한 후방사업도 뒤따랐다.

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은 청년들에게 위훈의 나래를 달아주었다. 공사장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고 위훈의 새 소식들이 시간을 다투며 속보판들에 나붙었다.

드디여 가장 어려운 굴진작업이 끝났다. 이로 하여 전반적공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고 얼마후에는 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게 되였다.

실효는 컸다.

청년들의 사상정신적면모가 새로와졌고 육체적으로도 더욱 튼튼히 단련되였으며 집단은 단합되고 화목한 전투대오로 강화되였다. 실천속에서 청년일군들의 대중발동능력이 높아졌으며 동시에 청년돌격대활동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관점도 바로서게 되였다.

이것은 그 어떤 경제적인 실리에 비할바없는 더없이 귀중한 성과였다.

찾게 되는 교훈도 있었다. 당조직이 청년돌격대를 조직하는것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품을 들여 적극 떠밀어줄 때 그 실효를 더욱 높일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니 청년돌격대활동을 통해 얼마나 큰것을 얻은셈인가.

윤명철

특성에 맞는 방법론으로

평양기료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동무 정신있어? 왜 함부로 기계에 손을 대는가 말이요?!…》

《그럼 기계가 고장날 때마다 수리공도움만 받겠습니까?…》

《기계속을 모르면 다치지 말란 말이요!…》

이것은 언제인가 평양기료품공장 바늘직장에서 기계수리공과 한 청년사이에 있은 일이였다. 이 사실을 놓고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더욱 짜고들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데 주목을 돌리고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일을 그르쳤던 그 청년이 손재간과 눈썰미가 있고 배우려는 열망이 남달리 높다는것을 알게 된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에게 대담하게 중요설비를 맡겨주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더 많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자 그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극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실빈침자통반을 새로 창안제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오늘은 작업반장으로,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책읽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혁명적인 소설을 통한 교양사업도 짜고들었다.

이런 실례가 있다. 공장에는 일터에 정을 붙이지 못하던 한 청년이 있었다. 그 청년에 대해 료해하던 초급당비서 엄혁동무는 그가 책읽기를 무척 좋아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공장청년동맹조직에서 혁명적인 도서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실효성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교양방법은 큰 온을 냈다.

청년동맹일군이 가져온 총서 《불멸의 향도》중에서 장편소설 《강계정신》을 읽고 조직을 찾아온 그 청년은 자신을 뉘우치며 앞으로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가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청년동맹조직에서는 읽은책 발표모임을 열고 그 청년을 내세웠다. 그후 그 청년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의 깊은 관심속에 그 청년은 점차 공장에 정을 붙이고 일에 몸을 잠그게 되였으며 로력혁신자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다.

이밖에도 공장현대화사업에서 모범적인 청년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긍정적소행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소개선전하는 등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사업을 잘 짜고든 실례는 많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는 과정에 모든 청년들이 공장의 억센 기둥감들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그들의 선구자적역할로 하여 전반사업에서는 전례없던 혁신이 창조되게 되였다.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옳은 방법론이 안아온 실효는 이렇듯 컸다.

허일무

믿음과 정은 맹장들을 키우는 보약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을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자랑중의 자랑은 매 탄광마다에 조직되여있는 청년돌격대에 대한 자랑이다. 지난해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맡겨진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한 청년돌격대원들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년간계획을 끝낼 결의안고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들고 믿음과 정으로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나가고있는 당위원회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서 찾는다.

믿음과 정으로 청년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이곳 당위원회가 중시한 문제의 하나이다.

신리탄광에 새 구역을 개발할 때의 실례를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건이 매우 불리한것으로 하여 한다하는 고속도굴진소대원들도 용을 쓰지 못하고있었다.

누구에게 이 과업을 맡길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진행된 일군들의 협의회분위기는 팽팽하였다.

굴뚝기경험이 있는 기능공들로 력량을 편성하자는 의견이 우세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책임비서 안창홍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김영조청년돌격대는 조직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고 대담하게 맡기자는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천투쟁속에서 전세대 청년돌격대의 혁신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자는것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여 탄광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과제를 청년돌격대가 맡게 되였다.

당위원회는 믿음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김영조청년돌격대대장을 청년연단에 출연시켜 신리탄광에 어떻게 되여 돌격대가 조직되게 되였는가를 되새겨주기도 하고 현장에서 노래해설모임도 조직하였다. 리수복영웅을 형상한 그림과 영웅이 남긴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가지고 직판선동도 특색있게 진행하였다.

이런 사업은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비상히 폭발시켰다. 한달이 걸려야 한다던 어려운 구간을 한주일만에 극복하고 매달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청년들에 대한 일군들의 견해도 새로와졌다. 청년들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것, 그들의 리상을 꽃피워주고 열정을 북돋아주는 사업을 바로 당조직이 해야 한다는 교훈도 찾았다.

모든 탄광당조직들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대담하게 믿고 어려운 과업을 맡기며 실천투쟁속에서 맹장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졌다.

당위원회는 또한 청년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피는데도 응당한 힘을 넣었다.

이런 실례가 있다. 지난해 7월 당위원회에서는 탄광당일군들과 청년돌격대대장들의 긴급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집을 떠나 생활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앞선 단위의 청년돌격대병실과 후방토대를 록화편집물로 보여주는것으로 시작된 협의회는 일군들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련합기업소안의 청년돌격대병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돌격대원들에게 더 좋은 후방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당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였다.

일군들은 이 사업을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해나갔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룡림탄광에 나가 그곳 당조직과 합심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의 병실을 개건하고 후방토대를 갖추어주며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품을 넣었다. 그리고 일군들로 참관을 조직하였다.

실효는 컸다. 모든 탄광당조직들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짧은 기간에 탄광들에 있는 청년돌격대병실이 훌륭히 개건되고 종합적인 측산기지와 남새온실, 버섯생산기지 등 후방토대가 그쯘하게 꾸려져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니 청년돌격대들의 전투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그것은 곧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졌다.

참으로 믿음과 정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는 보약중의 보약이였다.

본사기자 손영희

청년들을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 주체의 핵강국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자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 시, 군들에서 계속 진행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경축하는 군민련환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들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랑독된데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문천시, 단천시, 경원군, 배천군, 평원군, 락원군에서 진행된 군민련환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끼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만천하에 과시한 첫 수소탄시험의 대성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정의의 수소탄을 보유한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적권리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조치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우리 조국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강국으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르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날로 가증되는 미제의 핵공갈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며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복구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모든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며 공장, 기업소, 광산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성시, 신포시, 법동군, 운산군, 성간군, 천내군, 보천군군민련환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우리 당의 권위를 백방으로 결사옹위한 핵개발자들처럼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회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우리는 백전백승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강국건설의 력사적위업,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핵강국건설업적을 총대로 결사보위해갈 철석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군장병들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 싸움준비에 총력을 집중하며 만약 놈들이 이번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우리의 존엄을 계속 헐뜯고 우리의 신성한 령토, 령공, 령해에 단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천백배의 보복성전으로 원쑤의 무리를 이 지구상에서 씨종자도 남김없이 영영 쓸어버리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목소리는 회천시, 장강군, 시중군, 우시군, 룡천군, 철원군군민련환대회장들에서도 높이 울려나왔다.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으며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의 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강성국가건설대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주, 자립, 자위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애국의 열정안고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산과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개천시, 증산군, 고원군, 금야군 등의 군민련환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당당한 핵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며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적극 내밀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며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의 건설방침과 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중요생산시설들과 교육문화시설,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며 일터와 마을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피끓는 청년들은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수소탄시험성공의 뢰성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창조의 만세소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모두다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생산과 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전국고속도굴진 직맹돌격대원들의 결의모임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전국고속도굴진 직맹돌격대원들의 결의모임이 1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전국고속도굴진 직맹돌격대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전국고속도굴진 직맹돌격대활동이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주체107(2018)년까지 진행되며 전국고속도굴진사회주의경쟁이 조직되게 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찌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검덕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검덕광업련합기업소를 굴지의 대유색광물생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전국고속도굴진사회주의경쟁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오늘 련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 해제끼는 생산기지로 꾸려졌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국고속도굴진사회주의경쟁 참가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에게 안겨주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으로 당에서 정해준 전투과업을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돌격대원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휘하여 집단적혁신의 발파소리를 끊임없이 울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직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자기 단위 돌격대원들이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한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과 기질을 맨 앞장에서 이어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돌격대원들이 전국고속도굴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사회주의경쟁요강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화

참된 로병에게는 복무만 있다

대동강구역 청류1동에 사는 리광호전쟁로병의 수기 《지나온 20년을 추억하라》를 펼치고

우리앞에 한 전쟁로병의 보물인 수기집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전투실화는 아니다. 리광호로인이 제대되여 년로보장을 받았던 1990년대부터 오늘까지 20년간의 생활을 추억하여 쓴 글이다.

리광호로인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입은 부상으로 하여 이미 영예군인대우를 받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34년동안 군복을 입고 인민보안기관에서 복무하였으며 제대후에도 년로보장의 나이였지만 낳은지 석달밖에 안되는 부모잃은 세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준엄한 날에나 영광의 날에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엄혹한 시련도 꿋꿋이 이겨내고 당을 따라 선군혁명천만리를 억세게 걸어갈 신념의 기둥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세워준 전쟁로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는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혁명가적풍모의 귀감입니다.》

부양을 받아야 할 년로보장나이에 20년동안 부모잃은 갓난아이를 셋씩이나 안아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운 리광호로인의 소행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의 참된 전쟁로병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감탄하며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한 인정많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의 말년까지 투철한 사상과 대폭같은 신념으로 한생을 빛나게 수놓아온 전쟁로병의 총포성없는 평화시기의 또 한편의 전투실화를 전하게 된다.

《내가 이애의 아버지요》

26년간 일해온 초소의 정든 정문을 나서는 리광호로인의 귀전에는 전우들의 목소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들려왔다.

《제대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무엇을 할것인가?

흔히 년로보장자들은 일손을 놓은 다음 누구나 이 물음앞에 자신의 여생을 세워보군 한다. 그러나 리광호로인은 제대되기전에 벌써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심하였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로병은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1995년 내가 제대되여 년로보장을 받았을 때는 우리 조국에 있어서 참으로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땅엔 부모잃은 아이들도 생기게 되였다. 한평생 아이들을 왕처럼 떠받드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그 애들을 보시였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셨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듯하였다. …》

어느날 리광호로병은 안해 김학봉녀성과 마주앉았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것이 어떻소?》

너무도 뜻밖의 말에 안해는 펄쩍 놀랐다.

《당신 나이 몇이고 내 나이 몇이에요? 딸도 앓고있는 우리 집형편에서 두 늙은이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다니요?…》

남편의 결곡한 성미를 잘 아는 김학봉녀성은 이미 년로보장을 받은 다른 전쟁로병들이 하는것처럼 사회에 보탬을 주는 일감이야 얼마든지 찾을수 있지 않겠는가고 도리머리를 저었다.

리광호로인은 안해에게 말했다.

《우린 이 땅에 부모없는 애들이 없게 하자고 전쟁때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쳤소. 오늘도 미국놈들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소. 미국놈들에게 일가친척 다 잃은 당신도 당에서, 나라에서 품어키우지 않았소.》

조국해방전쟁시기 일가친척 37명을 한날한시에 미국놈들에게 빼앗기고 사형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어머니당의 품에 안겨 당일군으로까지 성장한 어제날을 돌이켜보는 김학봉녀성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몇달후 낳은지 석달밖에 안된 피덩이같은 갓난 처녀애를 품에 안고 안해가 집에 들어섰을 때 리광호로인은 《고맙소.》라는 한마디밖에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김학봉녀성의 눈가에도 눈물이 글썽해졌다.

《나야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이 아니나요.》

두 로인은 이렇게 갓난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였다.

선뜻 애기를 품어안기는 하였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였다. 피덩이같은 애기의 영양상태는 말이 아니였다. 아들은 군사복무를 하고 딸은 불치의 병을 앓고있어 도움받을 손이 없는 두 늙은이에게 있어서 갓난애키우기는 결코 손녀애키우기처럼 힐한 일은 아니였다. 더우기 그때는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였다.

우선 기저귀부터 만들었다. 그다음은 찹쌀을 닦아 절구로 찧어 암가루를 만들었다. 그렇게 지성껏 만든 암죽이였건만 애기는 받아먹지조차 못하였다. 하루에도 7번이나 탄불을 피워 덥혀 한술두술 아기의 입에 암죽을 떠넣어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냥 받아먹기만 하더니 애기의 배가 점점 불어나는것이 아닌가. 허둥지둥 로인이 안고 달려온 애기를 정성껏 치료해준 진료소의사는 이윽토록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 애기를 정말 키우자고 하십니까? 잘못하다간…》

그날 밤따라 애기는 왜 그렇게도 보채면서 울었던지.

아파서인지, 배고파서인지, 졸음이 와서 우는지 전혀 가늠할수 없는것이 로인에게는 제일 안타까왔다. 세 식구가 교대별로 날이 밝도록 달래였다. 마침내 애기가 쌕쌕 잠들었을적에 강직된 두팔을 겨우 푸는 로인의 귀전에는 진료소의사가 하던 말이 다시 들려왔다.

(키울수 있어. 암, 키워내구 말구. 나야 전쟁을 이겨낸 로병이 아닌가.)

며칠후 아침 리광호로병은 애기의 출생증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

《출생증을 받으러 왔습니다.》

첫 자식의 출생증을 받으러 왔던 젊은 부부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머리흰 로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인민보안원은 엊그제까지만도 자기들의 선배였던 이 전쟁로병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사연을 알고있었다. 출생증을 정히 펼쳐든 그의 눈가엔 뜨거운것이 그득히 고여올랐다.

출생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란만 있을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름란은 없다. 차마 펜을 들지 못하는 그에게 로인은 말했다.

《등록해주시우. 이름 리승리, 아버지 리광호, 어머니 김학봉》

인민보안원은 출생증을 정중히 내여주었다. 리광호로인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옛 선배이며 로병에게 뜨거운 거수경례를 드리는 인민보안원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동무들, 저분은 부모잃은 애기를 자식으로 삼은 전쟁로병동지요.》

그때로부터 6개월후 리광호로인은 두번째로 딸애의 출생증을 냈다. 역시 낳은지 석달밖에 안되는 부모잃은 갓난애였다. 그는 그 애의 이름을 미래라고 지었다.

로병의 행복

《나의 일생에 가장 잊을수 없는 행복한 날이다. 승리와 미래가 락아소와 유치원을 거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게 되였다.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해 눈물이 글썽해지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것은 승리와 미래의 개학날을 앞두고 잠 못 들던 그때의 심정을 담은 리광호로인의 수기의 한 대목이다. 애지중지 키운 두 애가 학생이 되던 날을 그는 일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였다고 지금도 눈시울적시며 추억하고있다. 왜 그날에 로인이 그렇게도 눈물겹도록 기뻤는지 아마도 자식들의 첫 개학날을 앞두고 한밤을 꼬박 새운 아버지, 어머니들도 리해하기 힘들것이다.

아이들의 책뚜껑도 정성껏 해주고 나라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학용품을 책가방에 차곡차곡 넣어주고나서 로인은 두 처녀애의 교복치마주름을 곱게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치마주름이 흐트러질세라 자기의 이불밑에 정히 깔고 밤이 이슥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자꾸만 잇달아 밀려드는 생각에 그는 다시 일어나앉았다. 쌔근쌔근 꿈에서도 웃는 어린것들을 이윽토록 들여다보는 그의 눈가에 저도모르게 뜨거운것이 핑 고여올랐다.

(이애들을 처음 안았을적엔 내 팔굽만 했었지.)

로인의 손끝에서 아이들의 얼굴엔 우유살이 퐁퐁 지고 다리도 통통해졌다. 태여나 첫걸음마를 뗀 어린것들이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내짚으며 《엄마!》하고 어루러질듯 품에 안길 때 로인은 얼마나 큰 행복에 겨워 울고웃었던가.

어머니에게 있어서도 키우기 제일 힘든 진아이를 한명도 아니고 두명이나 떠안고 할아버지로 대접받을 나이에 철부지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리광호로인의 손은 마를새가 없었고 허리펼 날,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다.

《…잘 놀던 미래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쓰러졌다. 정신없이 안고 달리는데 발은 왜 그리도 안나가고 병원은 왜 점점 더 멀어만 보이는지.

아이는 팔을 축 늘어뜨리고 숨을 할딱거렸다. 내가 대신 앓아줄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유치원에서 맞은 첫 6.1국제아동절이다. 다른 부모들은 손이 모자라게 맛있는것을 들고 애들을 찾아가는데 내 손에 든것은 밥곽뿐이다. 오늘 같은 날 그 어린것들에게 듬뿍이 안겨주지 못하는 마음 정말 죄스럽고 가슴아프다. 그 애들의 부모들이 살아있었다면!…》

팔이 닳도록, 손끝이 닳도록 애들을 키우던 나날들을 눈물겹게 되새겨보던 로인은 날이 밝으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멀었건만 서둘러 쌀함박을 손에 잡았다. 두번씩이나 학교를 찾아가 애들이 공부하는 교실창문을 들여다보던 그 행복한 개학날부터 그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리광호로인은 매일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애들의 아침밥을 지어주었다고 한다.

치마주름까지 꼼꼼히 보아주는 할아버지의 바래움을 받으며 아이들은 늘 제일먼저 교실에 들어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하는것으로부터 새날을 시작하였다. 하루와 같이 애들은 결석도 조퇴도 지각도 몰랐다. 그 애들의 뒤에서는 전쟁로병 할아버지의 웅심깊은 사랑이 아버지의 눈빛, 어머니의 손길이 되여 지켜주고 떠밀어주고있었다.

학부형총회때마다 리광호로인은 자그마한 학습장을 옆구리에 끼고 맨 먼저 학교로 찾아가군 하였다. 담임교원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나서는 학부형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도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아이들의 성적과 조직생활, 품성에 대한 평가들을 학습장에 꼼꼼히 적어넣군 하였다. 애들의 담임교원이 앞으로는 학습 및 생활자료를 다 적어서 로병동지에게 보내드리겠으니 힘들게 학교까지 걸음을 걷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을 때였다.

《나도 선생님에게 두 애를 맡긴 학부형입니다.》

인민반에서도 존경을 받는 로병의 손끝에서 아이들은 소년단원이 되고 모범학생들로 자라났다.

애들이 중학교졸업을 한해 앞둔 어느 여름날이였다.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을 맞이한 로인의 얼굴은 여느때없이 밝았다.

《래일부터는 이걸 신고다녀라.》

할아버지가 내여미는것은 뜻밖에도 처녀애들이 좋아하는 땐시였는 양말이였다.

《다른 처녀애들은 다 신었는데 너희들만 신지 못한게 가슴에 맺혀있었다.》

삼복철이면 동네늙은이들이 시원히 사먹는 아이스크림 한알 먹은적도 없고 담배피우는 모습도 한번 본적 없는 할아버지였다. 언제인가는 고운 머리빈침을 부러워하는 자기들을 위해 얼굴형이며 살색, 머리형태까지 따져가면서 반나절품을 들여 빈침을 사주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던 할아버지였다. 두 처녀애는 눈물이 글썽해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두벌자식이 더 곱다는 할아버지의 애정만으로야 어찌 리광호로인이 아이들에게 쏟아부은 헌신과 사랑의 세계를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그것은 아버지의 헌신과 기쁨, 어머니의 희생과 행복을 다 합친것에 비할수 없는 전쟁로병의 희열이고 삶의 진미였다.

리광호로인은 10여년세월 생활일지에 매일매일 소비한 쌀량과 남은 량을 꼭꼭 적어넣군 하였다. 식량공급소에서 쌀을 타온 날이면 늘 그러했듯이 그는 날자를 세여가며 식량을 나누어놓군 했다. 그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곁에서 력을 고이고 말끄러미 쳐다보던 애들이 물었다.

《할아버지, 왜 쌀을 나누나요?》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에게 준 쌀인데 아껴먹어야지.》

언제부터인가는 매일 고뿌로 되여먹던 그 쌀에서마저 또 한술가락씩 덜어졌다. 그렇게 모아진 쌀을 한달분 가정식량에 비로 마련해놓은 로병은 배급으로 타는 식량을 조금씩 덜어다달이 차곡차곡 자루에 모아담았다. 우리 수령님께서 조밥을 잡수시던 이야기,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한홉의 미시가루》이야기를 들려주며 로병은 자식들에게 당부하군 하였다.

《나라가 어려울 때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고 수도꼭지 한번이라도 더 막고 쌀 한줌이라도 절약하는것이 애국이다.》

아침에 밥을 지으면 그는 세끼씩 계산해서 온 집안식구들의 밥을 모두 그릇에 퍼놓군 하였는데 어떤 날에는 철부지애들이 점심에 저녁밥까지 다 먹어버리군 하였다. 그러면 저녁에 밥상우에 놓이는것은 할아버지의 밥 한그릇뿐이였는데 그것마저도 그는 고스란히 애들에게로 떠밀어놓군 하였다. 그런 날이 과연 로병에게 하루뿐이였던가.

당시 인민반장이였던 김영옥동무는 부모없는 아이들이라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나라에 우리 아이들몫으로 꼭 보탬을 주는것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한줌두줌 식량을 절약하던 전쟁로병의 그 고결한 정신세계앞에 온 인민반사람들이 머리를 숙이였다고 눈물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식량 200㎏,

그것은 리광호로인이 국가에서 전쟁로병에게 공급해준 자신의 식량에서 날마다 덜어낸것이였다. 로병이 량심의 저울로 달아 절약하여 나라에 바친 그 식량은 아이들의 순결무구한 마음에 2t, 20t에도 비길수 없는 정신적량식이 되여 흘러들었다.

어느날 학교에 갔다온 아이들은 방안에 누워있는 강보에 싼 갓난애를 보았다.

《할아버지, 이엔 누구나요?》

《너희들의 남동생이다. 우리 이애와 함께 살자. 이름은 영광이라 짓자.》

그때 할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던 밝은 미소를 두 처녀애는 영원히 잊지 못하고있다.

승리, 미래, 영광!

나이는 어쩔수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람의 육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과연 무슨 힘이 리광호로인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렇듯 무거운 짐을 스스로 걸머지고 여든나이에 이르도록 그토록 억세고 완강하게 삶을 끝없이 창조할수 있게 했던가.

두 처녀애가 2살이 되던 해 리광호로인은 중병에 걸려 끝내 자리에 누웠다. 늙은 몸에 파중한 정신육체적부담이 그를 쓰러뜨린것이였다. 가물가물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그는 자기 이마를 짚어주는 따스한 손길을 느꼈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두 어린것이 자기 머리맡에 있었다.

《할아버지!—》

가냘픈 그 목소리들이 로인의 귀전에 긴 메아리로 울려왔다. 자그마한 손들이 주름깊은 얼굴 여기저기를 쓰다듬었다. 로인의 눈귀에서는 저도모르게 눈물방울이 구을러내렸다.

(내 죽는것은 아쉬울것 없다. 하지만 저 애들을 두벌고아로 만들수는 없다. 저 애들을 끝까지 키우자고 나는 맹세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에 리광호로인의 눈앞에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의 구절들이 떠올랐다. 살아서 싸우는 어려운 길을 버리고 죽음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던 자신을 타매하면서 끝까지 사령부를 찾아온 투사의 목소리가 그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었다.

(그렇다. 나에게 있어서 삶은 곧 투쟁이다!)

로인은 불사신처럼 일어섰다. 아이들이 발치에 동동 매달렸다. 로인은 자기가 몇날이나 굶었는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어린것들부터 걱정했다.

《너희들… 밥먹었냐?》

힘겨웠던 그때를 돌이켜보며 리광호로인은 수기에 이런 글을 남겼다.

《육체적량식은 없어도 정신적량식만은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간고할수록 학습은 더 하라, 더 하자.》

사람에게 있어서 식량보다 더 귀중한것이 바로 정신적량식임을, 육체에는 한계가 있어도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뼈속까지 무장한 백절불굴의 정신력에는 죽음도 병도 있을수 없음을 전쟁로병 리광호로인은 자신의 생활로 실증하였다.

놀라울 정도로 로인은 지금껏 하루도 번지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당보를 비롯한 당출판물들을 읽고 또 읽고 발취하고 또 발취했다. 아이들에게 제 밥까지 덜어주고 끼니를 건넌 날에도 그 밥상에 책을 펼쳐놓고 한자한자 심장에 새기며 읽어나갔다.

리광호로인의 안해도 딸도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였다. 김학봉녀성이 다시는 일어날수 없는 몸이 되여 아예 자리에 누운 다음 로인은 안해와 딸 두 중환자와 철부지어린것들을 혼자서 돌봐야 했다. 애들을 더 키우느냐, 학원에 보내느냐 하는 첨예한 갈림길앞에 그는 백번천번도 더 서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에서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이다는 대목을 읽었고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나오는 《불사조》투사들앞에 자신을 세워보군 했다.

딸마저 세상을 떠나고 일흔이 넘은 늙은 몸에 세 아이를 품어안은 그를 걱정하여 동네사람들이 이제는 애들을 학원에 보내자고 간청할 때에 리광호로인이 내린 결심은 무엇이였던가.

그날부터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날까지 《김일성전집》 전부를 발취할것을 결심했다. 아이들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숙제검열도 하고 가정일을 다 한 다음에 리광호로인은 책을 펼쳐들었다. 매일같이 책을 빌리러 찾아오는 전쟁로병을 위해서 도서판에서는 새 책이 나오면 제일먼저 그에게 안겨주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는 신문매대로 곧장 오군 하던 리광호로인에게로 《로동신문》이 찾아왔다.

아이들의 숙제검열을 한 다음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작들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군 했다. 할아버지의 책장에 아니 로병의 심장속에 가득찬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이들은 자랐다.

중학교졸업을 앞둔 승리가 생일을 맞이한 날이였다. 정은희담임교원과 학교당세포비서, 학급동무들이 한집안식솔처럼 모여앉았다. 한가슴에 넘치는 고마움의 정과 눈물을 가득 담아 승리와 미래는 리광호로인에게 술을 부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할아버지가 빨아주고 기워준 옷을 입으며, 한번도 비를 맞아본적 없이 오늘까지 자랐습니다. 단벌솜옷으로 살아온 할아버지는 우리를 키우면서 술도 담배도 생일도 배고픔마저도 다 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다닌 곳이 있다면 그것은 신문매대와 구역도서판뿐입니다. 끼니는 번지여도 늘 책상앞에 앉아 공부하던 할아버지의 모습, 다문 한 푼이라도 나라에 보탬을 주기 위해 애쓰시던 그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 되고 넋이 되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마운 우리 로병 아버지를!》

이야기는 끝났지만 고요한 흐느낌소리와 함께 터져오른 박수소리는 오래도록 멎을줄 몰랐다.

색날은 책장과 책상뿐인 자그마한 방에 로병이 한생토록 마련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수십년동안 밑줄을 그어가며 발취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발취집과 《로동신문》기사발취집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돈이나 물건은 없다가도 생기지만 정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고, 정신은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리광호전쟁로병은 이 위대한 혁명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자기 인생의 승리로 증명하였다. 사상으로, 정신력으로 그는 인생말년까지 그 어떤 모진 정신육체적고통도 피로움도 완강히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였다.

리광호로인에게는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오던 20년전에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썼던 편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지를 어버이장군님께 올리지 못했다. 아이들을 사회앞에 떳떳이 키워 내세운 다음 장군님께 기쁘게 올리리라 마음다졌던것이다.

마음이 나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는 그날의 편지를 읽어보고 거기에 편지를 본날자들을 정히 적어넣군 하였다.

《굶어죽어도 사회주의만은 배고 죽겠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로병은 장군님만 따르고 장군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20년세월 변함없이 어버이장군님께 올리는 편지에 적은 날자들, 그것은 불타는 전호가에서 돌격전을 앞두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에 남기던 그날의 수표였고 생의 말년까지 당과 조국을 위하여 충직하게 복무한 로병의 신념과 량심의 전투기록이였다.

2013년 봄, 어느덧 공민이 된 승리와 미래가 사회생활의 첫발자욱을 떼는 날이 왔다.

수년세월 리광호로인의 친혈육이 되여 아픔도 괴로움도 함께 나눈 청류1동 초급녀맹위원장 고향분동무는 이 기쁜 날 두 처녀가 입을 옷까지 마련해주었다. 10년세월 아이들의 생활을 성의껏 돌봐준 평양제1백화점 판매원들과 오랜 세월 로병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대동강구역의 인민보안원들과 청류종합진료소의 의료일군들, 청류공업품상점 판매원들과 청류1동 녀맹원들, 인민반원들과 세포당원들의 마음도 그 시각 어머니당과 조국을 위하여 보답의 첫걸음을 내디디는 두 처녀를 뜨겁게 바래워주고있었다. 아름답고 화목하고 정깊은 사회주의대가정의 그 모든 마음과 애정을 다 안고 리광호로인은 승리와 미래를 바래주었다.

승리와 미래는 지팽이를 짚고 선 할아버지앞에 허리를 굽혔다. 두 처녀의 눈굽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렀다.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넋을 준 할아버지, 곧바르고 굳센 인생길의 스승이 되여준 전쟁로병에게 두 처녀는 허리굽혀 절을 했다.

《할아버지!—》

리광호전쟁로병은 행복의 미소를 짓고 서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 충정의 보고를 올렸다.

(수령님, 장군님! 승리와 미래 그리고 영광이를 조국앞에 세웁니다.)

승리, 미래, 영광!

이 세 자식의 이름에 리광호전쟁로병을 오늘까지 굴함없이 삶의 창조자로 살아오게 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전쟁로병들이 사회적존경속에서 크나큰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년로보장을 받은 생의 말년에도 참된 로병에게는 부양이란 있을수 없다는 신념을 안고 후대들에게 생명의 피줄기뿐만이 아니라 건전하고 고결한 사상과 정신, 도덕과 륜리를 유산으로 물려주며 나라에 짐이 아니라 보탬이 되기 위해 끝없이 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이런 전쟁로병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다.

인정만으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는 투철한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한 전쟁로병의 불변의 신념, 불굴의 의지는 년로보장자를 피덩이같은 세 아이의 아버지로, 스승으로 만들었으며 그를 온 나라가 경탄하며 존경하는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 삶의 창조자,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

우리 당이 조국을 지킨 은인으로,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세우며 떠받들어 존경하는 이런 전승세대, 전쟁로병들이 바로 우리 사회주의의 순결한 혈통을 오늘까지 억세게 이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조 향 선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추동하는

우표 발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추동하는 우표(소형전지 1종)를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

소형전지의 웃부분에는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라는 글발이 부각되여있다. 중심에는 올해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것을 호소하는 우표가 있다. 또한 《5대교양》, 《일심단결》, 《자강력》이라는 글발이 씌여진 붉은 기폭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할데 대한 사상이 반영되여있다.

새로 발행된 우표는 최강의 핵보유국의 위용을 떨치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총진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새로운 기적창조로 들끓는다

황해남도물길공사에 동원된 평안남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려단 려단장 장익환동무는 물길굴콩크리트피복공사를 위해 낮교대에 들어간 돌격대원들이 교대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현장을 떠나지 않고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뛰다싶이 학현굴 1사갱작업장으로 들어선 려단장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순천시대대와 덕천시대대에서는 계획된 공사량의 2배나 되는 버럭처리를 하였고 신양군대대와 안주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콩크리트치기과제를 200%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에 대한 특별중대보도에 접한 이들이 어떤 불같은 결의를 다지며 떨쳐나섰는지 짐작이 갔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돌격구령을 치며 앞채를 메고 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각 대대 일군들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고조된 분위기와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정신력을 분초마다 느낄수 있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쪽에서는 돌격대원들이 콩크리트혼합물을 가득 담은 맞들이를 들고 힘차게 내달렸고 다른쪽에서는 방금 갱안에 들어온 화물자동차에 부리나케 버럭을 싣고 있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막을 열어제낀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 정말이지 새겨볼수록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납니다. 그러니 어찌 오늘의 하루하루를 평범하게만 맞고보내겠습니까.》

려단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또다시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손을 잡는 신양군대대의 대대장이였다. 격정으로 달아오른 전투장이 더욱 끓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분분초초가 흐르는 가운데 드디여 그들은 종전보다 3배의 속도로 콩크리트치기와 버럭처리과제를 해제꼈다.

스스로 정한 전투목표를 점령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얼싸안고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며 모여들었다. 기쁨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치부장 배정식동무가 사진기의 샤타를 눌렀다. …

수소탄의 장엄한 뢰성을 승리의 포성으로 이어갈 불같은 열의 안고 이들은 완공의 그날을 위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이렇게 이어가고있다.

전 명 일

이 땅우에 체육강국을 일떠세워 우리 조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할 필승의 기상

기관차체육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기관차체육단에서 종목별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뜻깊은 올해에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들을 창조하려는 불같은 열의로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합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비상한 열의로 충만된 체육단선수들은 지난해에 평시에 련마한 자기의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 체육단부문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줄달음쳐왔다.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이곳 체육단선수들은 금메달 13개를 포함한 40개의 메달을 쟁취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종목의 국내경기들에서도 10여개의 컵과 금메달 153개를 포함한 45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뿐만아니라 체육단에서는 10종에 98개에 달하는 육체훈련기재들을 새로 제작설치하고 3 000여㎡의 야외육체훈련장과 실내육체훈련장을 손색없이 꾸려놓았으며 청소년체육학교개건보수공사를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와닥닥 결속하였다. 이밖에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비롯하여 훌륭한 사업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이 되는 지난해에 선수들의 체육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게 된 위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켰다.

체육단에서는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종목별체육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김태성, 라영판동무를 비롯한 체육단일군들은 체육단에 어려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모든 감독, 선수들과 종업원들에게 가슴깊이 되새겨주며 비약적인 체육기술발전성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정치사업,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강하게 내밀면서 모든 선수들이 훈련에서부터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을 자자구구 새기도록 조직사업을 심화시켜 선수들모두를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의 강자로 준비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모든 선수들은 매일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새날의 위훈을 굳게 다짐하며 훈련장에 진출하고있다.

부단장 로철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감독들의 역할을 높여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훈련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내밀면서 훈련장들에서 선수들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여 백두의 훈련열풍이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고있다.

모든 감독들은 체육과학연구사, 체육의료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면서 세계적인 체육기술발전추세에 기초하여 우리 식의 독특한 훈련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선수들의 체질에 맞게 하루빨리 세계적인 특기를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훈련의 강도를 개별화, 세분화하고 앞선 훈련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한 탐구를 심화시키면서 세계패권자들을 더 많이 키워낼 불같은 열의에 넘쳐 드높은 창조적열정을 발휘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기어이 금메달을 쟁취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선수들이 새해 첫 훈련에서부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오늘의 한초한초를 값높이 이어갈 때 래일의 금메달, 조국의 금메달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모든 선수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훈련장마다에서 비약의 열풍을 일으켜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창조의 밑천을 더욱 억세게 다져가고있다.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녀자 75㎏급경기에 출전하여 경기도중에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강의한 정신력과 의지로 끝까지 경기를 진행하여 주체조선의 체육인의 불굴의 모습을 힘있게 보여주고 세계체육계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킨 림정심선수처럼 조국을 위한 길에 청춘의 심장을 다 바쳐갈 숭고한 애국정신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있다.

당이 준 과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체질화한 군인건설자들의 불같은 투쟁에 의하여 미래과학자거리가 어떻게 일떠서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목격하면서 훈련의 날과 날을 이어온 체육단의 모든 선수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며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고 어제와 오늘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날로 비약하는 시대의 숨결에 발맞추어 하루빨리 세계를 압도하는 우리 식의 기술과 경기전법의 소유자로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날마다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렇듯 백두의 훈련열풍으로 훈련장을 뜨겁게 달구고있는 선수들의 열의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이라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격동적인 소식으로 하여 더욱 하늘에 닿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눈부신 대성공에서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백배천배로 다진 이곳 일군들과 체육인, 종업원들은 비약의 열풍, 애국의 열풍을 더욱 드세차게 일으키며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고 체육강국의 희망찬 미래를 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승리의 돌파구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체육과학원 일군들과 연구사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하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여 끝없이 솟구치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체육과학원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올해진군의 발걸음을 더욱 힘있게 내짚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어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해나가는데서 체육과학원은 기관차와 같다고 생각한 원장 전찬주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올해 첫 전투에서부터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모든 일군, 연구사들이 지체없이 현실속에, 감독, 선수대중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중요하게 강조된 내용이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국제경기들에 대한 분석을 더욱 강화하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체육단들에 내려가 감독,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 특히 체육과학이 아직 원만히 도입되지 못하였거나 현대체육과학기술발전에 미처 따라서지 못하고있는 문제들을 도출하여 그 원인들을 깊이있게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그 해결을 위해서는 체육과학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연구사들의 자질부터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력이 없으면 오늘의 총진군의 기수가 될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연구사들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자.

온 과학원안에 자질향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지난 시기 10권의 체육도서들과 백수십건의 소론문을 집필하여 체육선수들속에 널리 알려진 원장이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스스로 현실성있는 연구과제를 내세우고 불같은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세차게 일어번지는 실력전의 된바람속에서 실력이 뒤떨어지면 자기 위치를 차지할수 없다는 자각으로 더욱 분발한 일군들이 밤을 패면서 연구사업을 하는 열정적인 모습들도 련이어 펼쳐졌다.

체육과학원에서 올해의 실력전과 더불어 중시한 문제의 하나는 연구과제설정이다.

탁구경기에서 득점률을 높이기 위한 전술체계에 대한 연구, 물에뛰여들기종목발전에 가치있는 훈련기재를 우리 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연구를 비롯하여 종목별협회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국제경기들에서의 성과를 담보하며 체육부문에서도 수입병을 없애고 국산화열풍을 일으키는데 의의가 있는 연구과제들이 많이 설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어 과학원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이렇듯 실지 우리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의 과학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그것이 그대로 국제경기무대에서 조국의 금메달로 이어질수 있게 하는 절실하고도 현실적가치가 큰 과제들을 선정하고 연구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지난해에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과 물에뛰여들기종목의 세계패권자로 위훈떨친 10대의 김국향선수를 비롯하여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무대들에서 펄펄 휘날린 공화국기에는 이곳 과학원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불같은 열정이 깃들어있다.

우리와 만난 처장 김문동무는 《지금 우리 체육과학원안의 전체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기세는 하늘에 닿고있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민족의 천만년미래가 활짝 펼쳐진 우리 조국의 존엄과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체육강국건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데 애국적열정을 총폭발시켜나가겠습니다.》라고 힘주어 결의다졌다.

태양의 빛발따라 날로 강대해지는 영웅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한 체육강국건설의 선두에서 기세드높이 내달리는 체육과학원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의 투쟁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을것이다.

강효심

올해에 다시한번 통장훈을!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시, 군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는 당의 요구와 체육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기초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전망성있는 우수한 선수후비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지난해에 원은경학생이 2015년 세계청소년 및 청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단연 우승함으로써 강서구역청소년체육학교는 전국적인 체육선수후비육성부문에서 그야말로 통장훈을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학교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면서 리화욱, 문영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한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아쥐고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의 실리를 최대로 높여나가는 문제였다.

뜻깊은 올해에 우리 학교가 전국적으로 또다시 통장훈을 부르자면 어디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는가.

학생들에 대한 체육기초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체육학교사업은 종목별학생선발, 훈련지도, 체육과학기술보급, 훈련조건보장 등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학교에는 축구와 륙상, 권투와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 많은 지도교원들과 학생들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종목에서 원은경학생과 같은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키워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지난해사업을 돌이켜보면서 사색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속에 리명철지도교원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문제가 강하게 론의되였다.

몇해전 어느 한 학교를 지나던 권투지도교원 리명철동무는 습관적으로 운동장에서 뛰여노는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가운데서 남달리 육체적준비가 좋고 동작이 민첩한 한 학생을 보는 순간 리명철동무의 눈이 번쩍이였다.

그가 바로 원은경학생이였다.

어느모로 보나 권투종목에서 발전성이 좋은 적성체질의 소유자였다.

그때로부터 리명철동무의 열정적이고도 과학적인 교수훈련지도를 받으며 원은경학생은 권투기초기술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참가한 국제경기에서 단숨에 패권을 쟁취하게 되였다. 이렇듯 훌륭한 종자가 훌륭한 열매를 안아온다는것을 원은경선수의 실례가 명백히 보여주고있었다.

리명철동무의 사업경험에 기초하여 학교일군들은 적성체질의 학생들을 정확히 선발하여 품들여 키울 때 같은 조건, 같은 시간에도 교수훈련지도의 실리를 최대한 높일수 있으며 원은경학생과 같은 앞날의 체육강자후비를 많이 키워낼수 있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기였다.

협의회에서는 여러가지 측정기재들을 리용하여 학생선발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종목의 지도교원들이 머리가 좋고 육체적준비도 좋은 적성체질을 갖춘 학생들을 찾아내여 알심있게 키우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토론되였다.

협의회마감에 교장 리화욱동무는 말하였다.

《실농군이 한해농사를 알찬 씨앗을 고르는것으로부터 시작하듯이 올해 우리 학교사업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먼저 적성체질의 소유자들을 정확히 찾아내는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한명을 키워도 체육강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말그대로 전도유망한 체육선수후비를 육성하는것, 이것이 올해 우리 학교가 들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입니다.》

이처럼 이날회의에서 학교의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은 합심하여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현실과 경험에 기초하여 원은경선수와 같은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을 키울수 있는 옳은 방법론을 세우게 되였다.

지금 학교의 일군들은 재능있는 체육선수후비들, 특기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 교육부문과의 련계밑에 학생선발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있으며 지도교원들 누구나가 적성체질을 갖춘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고 더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올해 학교사업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비약의 큰걸음을 내짚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일념이 차넘치고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다시한번 통장훈을 부르리라!

본사기자 전철호

사업총화뒤끝의 배구경기

황해북도정보통신국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일군들부터 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도적으로 체육을 잘하는 단위로 소문난 황해북도정보통신국에서 새해에 들어와 대중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사업총화뒤끝에 진행되군 하는 국의 부원이상 일군들과 아래단위책임자들의 배구경기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국에서 조직하는 이러한 배구경기의 실리는 매우 크다. 국안에 대중체육분위기를 고조시키는것은 물론이지만 보다 중요한것이 있다.

당시 새로 사업을 시작한 국장 김광원동무는 자기 단위의 체육사업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당의 대중체육방침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국에는 이미전부터 아래단위까지 포함하여 배구팀이 여러개나 있었다. 매 팀에 망라된 선수들의 기술은 일정한 수준에 있었지만 나머지종업원들의 수준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있었다.

결국 단위의 체육사업이 선수들에게만 국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도적으로 진행되는 경기는 물론 드문히 진행되군 하는 다른 단위와의 도전경기에도 이들속에서 선발된 종업원들만이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본질에 있어서 국의 체육사업이 대중화되였다고 말할수 없었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아래단위들의 체육사업이 책임자들의 취미본위에 따라 산발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이였다.

실태에 대한 분석을 깊이 할수록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을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름아닌 체육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을 높이는것이며 그에 기초한 합리적인 조직사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한 김광원동무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집체적인 토의를 적극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부원이상 일군들과 아래단위책임자들이 다 참가하는 사업총화를 계기로 하여 배구경기를 진행하자는 안이 나오게 되였다.

초급일군이상 일군들이 참가하는 배구경기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국장과 기사장은 물론 60나 이를 바라보는 직맹일군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배구경기를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체육열의를 부쩍 높이고 대중체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게 되였다.

특색있는 경기조직으로 일군들의 체육열의부터 높인 결과 단위의 체육분위기와 모든 종업원들의 체육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였다. 체육사업이 몇몇 잘하는 종업원들에게만 국한되였던 편향이 흔적없이 사라졌다. 누구나가 퇴근시간이후에 배구, 탁구훈련에 열중하는것은 물론이고 책임자들이 앞장에 서서 단위별로 적극적으로 조직진행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마음도 하나로 더욱 합쳐졌다. 그 과정에 누구에게나 쉽게 말하기 꺼려하던 문제까지도 스스럼없이 터놓는 종업원도 있었고 온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가는 화폭들도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였다.

김광원동무는 말하였다.

《종업원들의 체육열의가 순간도 식지 않게 하는데서 일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창조적인 사색과 기술전이 배합되면 성과가 크다

부령합금철공장 지배인 량영호동무의 사업경험을 놓고

부령합금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승리의 5월에로 향한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 모든 사업을 힘있고 믿음성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는 최근년간 합금철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한데 이어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과학화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무연알탄생산공정과 합금철로들을 새로 일떠세웠다.

결과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고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는 4원계, 회토류계 등 10여가지의 경제적의의가 큰 합금철들을 련이어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일터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고 로동자합숙, 정양소가 훌륭히 일떠섰으며 생산은 물론 축산, 수산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일이 잘되는 단위로 소문을 내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이룩한 이 성과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로 되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끊임없이 비약하며 혁신하는 굴지의 합금철생산기지의 벅찬 숨결은 이곳 당, 행정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안아온것이다. 허나 한개 단위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당의 경제정책을 자로 하여 맡은 사업을 혁신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지배인 량영호동무의 창조적인 일본새와 크게 관련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과학적인 타산과 생산활성화의 길

모든 공장, 기업소가 생산활성화를 지향하지만 결과는 같지 않다. 그 차이는 일군들의 창조성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심을 지니고 창조적으로 일해나가는 량영호동무의 일본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수백리 떨어진 어랑지구에 2기의 합금철로를 새로 일떠세웠다. 그 투자와 품은 간단치 않았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일부 사람들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막대한 로력, 자재문제로 별로 리익이 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후 우렁찬 생산활성화의 동음과 더불어 미처 몰랐던 많은 우점들이 나타났다. 우선 규석원천지와 야금학적행정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합금원소들이 많이 매장된 곳이 가까이에 있어 애를 먹던 수송문제가 절로 해결되였다. 게다가 발전소주변에 합금철로가 일떠서니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였다.

결국 원단위소비기준은 훨씬 줄어들고 생산성은 1.7배이상 높아졌다. 수자적으로 놓고보아도 한해동안 원료수송에 들던 막대한 연유가 절약되였다. 이렇게 전력보장, 원료수송 등의 생산조건들이 좋아져 더 많은 합금철들을 생산개발할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지금 어랑분공장건설에 소비된 투자를 계통적으로 보상하면서 도에서 자체로 일떠세우는 발전소건설까지 물심량면으로 지원하고있다. 분공장건설을 착상하고 완강하게 내민 배심과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찡먹고 알먹는 격의 생산활성화방도를 먼저 생각해낸것은 지배인이였다.

지난 어느날이였다. 지배인의 머리속에서는 이모저모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어랑지구에 대한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켜 공장을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의 요구에도 맞고 전력보장조건도 유리한 이 지구는 분공장건설에 리상적인 명당자리라고 할수 있었다. 규석과 합금원소들의 풍부한 매장량과 수송거리 등 과학적인 수자와 자료들을 놓고 하나하나 분석해볼수록 큰 실리가 나는 일이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그는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어랑지구의 지질상태를 다시금 확정하고 전력, 원료수송조건이 가장 안성맞춤한 곳을 찾아 발이 닳도록 현지답사를 진행하였다. 그 나날 경제적효과성을 깐깐히 타산하며 그가 맞고보낸 사색의 밤들과 현지답사를 위해 달린 거리는 얼마인지 모른다.

단위책임일군의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창조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또 한가지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75%규소철은 지난 시기 큰 합금철로에서만 생산하는것으로 되여있었다. 생산성과 제품의 질이 합금철로의 생산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기성관념때문이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대하는 지배인의 분석각도는 달랐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사정과 원가보상측면 등을 놓고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며 생산활성화의 길을 모색하였던것이다.

그는 생산능력이 각이한 합금철로들이 가동한 수십년간의 작업일지들을 직접 대비분석하며 공장기술집단을 불러일으켜 방도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생산능력이 작은 합금철로에서도 75%규소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수 있게 하였다.

에네르기절약형의 합금철로가 일떠서고 건축미학적으로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손색없는 건물들과 그쯘히 마련된 축산과 수산토대들에도 그의 이런 창조적인 열정이 깃들어있다.

기술주도형의 일군과 알찬 열매

단위책임일군의 창조적인 사색이 선차라면 무엇이 안받침되여야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가.

기술주도형의 일군이 될 때 생산도 잘되고 기업소가 흥한다는것이다. 이 공장의 실례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량영호동무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지배인의 활동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주요부분으로 간주하고있다. 언제나 그는 새 기술의 적극적인 발기자가 되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공장전반사업을 활기있게 추동하고있다.

지배인사업으로 바쁜 속에서도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을 자주 만나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방도를 토의하군 한다. 장소는 현장일수도 있고 회의뒤끝이나 퇴근길 등 특별히 제정된 장소가 따로 없다. 이때 자기가 생각해오던 문제점을 내놓고 기술자, 기능공들과 의논하며 보다 발전적인 기술혁신안이 되도록 이끌어나간다.

합금철생산의 주체화를 공고히 해주는 무연알탄생산방법을 완성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무연알탄생산공정을 꾸려놓은 공장에서는 접결제까지 자체로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중요한것은 무연알탄의 기공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기술적론쟁이 벌어지던 어느날 지배인은 벼겨나 톱밥을 리용하는것도 좋지만 북부지구에 흔한 갈탄으로 기공도를 높이자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성공하면 막대한 량의 벼겨나 톱밥이 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다.

성공의 길에는 난관이 동반되였다. 그럴수록 지배인은 자신이 직접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그 가능성을 확정하고 필요한 연구자료들을 기술자들에게 안겨주면서 배심을 가지고 내밀도록 하였다.

새로운 합금철생산방법을 확립할 때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합금철개발이 시원스럽게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해당 기술자와 자리를 같이한 그는 형석의 첨가비률을 더 높여 슬라크의 류동성을 보장하면 어떻겠는가고 며칠째 고심해온 자기의 생각을 내놓았다. 아직은 착상에 지나지 않는 방안이였지만 기술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좋았다.

이런 경우 기술자들은 자기들의 애타는 문제를 관심하며 호흡을 같이할줄 아는, 언어가 통하고 배짱이 맞는 일군을 따르게 된다. 그만큼 성수가 나서 맡은 과제수행에 열성을 내게 되며 공장의 기술발전사업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것이다.

이렇게 그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무심히 대하지 않고 걸린 문제를 도맡아 풀어주면서 공장의 기술발전사업을 주도해나가고있다.

지배인이 자기 단위의 기술발전사업을 옳게 주도하지 못하면 지식경제시대 일군의 자격이 없다는것이 량영호동무의 견해이다.

그는 공장의 기술발전사업을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각밑에 선진기술을 더 많이 습득하기 위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있다.

이곳 기술일군들이 도와 중앙으로 오가는 출장길에서 지배인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는것이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배워오고 과학연구기관들과 인민대학습당 등을 찾아가 새 기술자료들을 얻는것이라고 한 사실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이렇듯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의 밑뿌리가 되여 기술자들을 고무추동한 실례는 적지 않다. 단위책임일군들이 새 기술의 적극적인 발기자가 될 때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은 현실에서 큰 위력을 나타내며 공장의 전반사업은 잘되기마련이다.

합금철생산의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이룩된 성과는 지금 나라에 커다란 경제적실리를 가져다주고있다. 축산과 수산토대를 그쯘하게 갖추게 된것도 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공장사업을 드세차게 내민 덕이라고 할수 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는 한개 단위의 생산을 책임진 일군들이 더욱 분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부령합금철공장 지배인 량영호동무의 사업경험은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창조적인 사색을 번뜩이며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끊임없이 비약할 때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을 단죄한다

조 선 법 률 가 위 원 회 백 서

현시기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력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제1차 세계대전시기 교전국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정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무려 60년이상이나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으며 정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전환되기는커녕 백지화되여 전쟁위험만 날로 증대되고있다.

사실 1953년의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정전협정과 달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국제법적문건이다.

우리는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지향한 조선정전협정과 전후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군사정세의 요구로부터 시종일관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왔다.

법률적으로 합법이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은 군사적대결과 전쟁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도전과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오늘 미국이 비핵화가 선행되여야 협상을 할수 있다는 순서타령을 하면서 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근본목적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전조선을 타고앉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일극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데 있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법적담보로 되는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는 미국의 범죄적책동과 그 근저에 깔려있는 흉심을 국제사회와 진보적인류앞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조미평화협정체결에 대한 립장과 정 전 협 정 의 백 지 화

평화협정은 적대적군사행동의 림시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협정과 달리 전쟁상태를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국제조약이다. 평화협정에 대한 태도와 립장은 평화애호세력과 호전세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미국은 전후 장장 60여년간이나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고 정전협정을 대조선적대시정책실현의 법적수단으로 악용하여 조선반도를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만들었다.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범죄적흉계로부터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이였다. 그러나 전쟁시작부터 쓰디쓴 참패만을 당한 미국은 전쟁개시 1년만인 1951년 6월 30일 정전담판을 제기하였으며 드디여 1953년 7월 27일 우리와 미국사이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은 전후 평화관계수립의 법률적기초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주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일시적인 교전중지가 아니라 조선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확립할것을 예견한 국제법적문건으로 채택되였다.

정전협정에서 핵심조항은 제60항이다. 그것은 이 조항에 의하여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가 규정되였고 그것이 차후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명백한 법률적근거로 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통하여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문제가 법화된 조건에 맞게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켜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부터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악착하게 가로막았다. 미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기 전인 1953년 10월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을 체결함으로써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주둔과 무력증강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미국은 1953년 10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해 열린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담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고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계수립을 위하여 1954년 4월에 소집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킴으로써 정전협정에서 예견되였던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정전후 1년도 못되여 정전협정 제60항은 사실상 무효화되였다.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와 증대되는 전쟁위험에 대처하여 우리는 1956년 4월 28일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과 유관국들에 제의하였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투쟁과 더불어 년대와 세기를 이어 줄기차게 계속되여왔다.

우리는 1974년 3월 정전협정에 따르는 평화체계수립을 위한 한급 높은 정치회의소집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정전협정당사자이며 평화보장체계를 실제적으로 담보할수 있는 실권자인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미국회에 정식 요구하였다. 정전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1994년 4월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에 거듭 제기하였다. 1996년 2월에는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발기하였으나 미국은 우리의 모든 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계속 몰아갔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노력하였다. 2010년 1월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언급되여있는 9.19공동성명의 행동순서를 실천적요구에 맞게 앞당겨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평화협정체결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제의와 노력에 대해 미국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는것으로 도전해나섰다.

정전직후에 벌써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보장체계수립을 확약한 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파괴한 미국은 1957년에 들어와 조선경외로부터 모든 무장장비의 반입을 일체 금지하기로 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ㄷ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수단과 살인무기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였다. 군사인원의 증강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침략무력을 확대하였으며 1991년에는 정전협정체결당사자도 아니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남조선군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였다.

조선정전협정의 핵심조항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미국은 아무런 법률적제약이나 제도적구속도 받음이 없이 군사적도발과 전쟁책동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의 정전협정위반행위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013년 3월 5일 대변인성명으로 자위적대응조치로서 미국에 의해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였다는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에 우리가 더이상 구속될 필요가 없게 된데로부터 부득이하게 취한 대응책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전협정은 호상 합의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정전협정에 얽어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정전협정의 백지화선언은 국제조약의 효력소멸에 관한 국제법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다. 1907년의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그협약 제40조에는 일방이 정전협정을 심히 위반하는 경우 타방은 협정폐기의 권리를 가질뿐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전투를 개시할수 있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1969년에 채택된 조약법에 관한 원협약 제60조 1항에도 한 당사국이 쌍방조약상의 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그를 리유로 해당 조약의 효력을 소멸시킬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러한 국제법규범들에 비추어볼때 정전협정의 백지화선언을 부정하는 미국의 언행은 법률적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정전협정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제반 사실은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진정한 평화애호국가이라면 미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평화보장체계확립을 극도로 부정하고 반대하여온 조선정전협정의 극악한 유린자, 횡포무도한 평화파괴자, 전쟁원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2. 조미평화협정체결은 현시기 더는 미룰수 없는 최우선적과제

조미평화협정체결은 현시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더는 미룰수 없는 최우선적과제이며 긴급한 문제이다.

미국의 검질긴 정전협정위반책동과 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정전협정이 백지화됨으로써 우리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적인 전쟁상태로부터 사실상의 교전관계로 전환되였다.

미국에 있어서 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항시적인 대결과 전쟁상태를 유지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전략실현에 리용되는 조건에서만 필요한것이다. 정전협정으로써는 조선반도의 지속적인 불안정과 긴장상태를 완화시킬수 없으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정전협정체결후 60여년의 력사가 남긴 심각한 교훈이며 총화이다.

조선정전협정이 력사속에 매몰된 후 제도붕괴를 노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2009년 《확장억제전략》, 2013년 10월 《맞춤형억제전략》 등 우리를 핵무기로 선제타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계책들을 꾸며낸 미국은 해마다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대규모 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공세를 날로 로골화하였다. 2014년 10월에는 남조선에 2015년 12월부터 넘겨주기로 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특정한 시기도 밝히지 않고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조미사이의 군사적대결기도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들며 각종 《제재결의》들을 날조하다 못해 미국은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본격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는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한점의 불꽃이 곧 열핵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대결장으로 되고있다.

원인모를 자그마한 사건으로 정세가 일순간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2015년 8월사태는 효력이 상실되여 명색만 남아있는 정전협정으로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더는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해주었다.

우리는 최근시기 극적으로 변화된 조선반도정세의 요구에 따라 유엔총회 제70차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또다시 제기하였다.

오늘의 조선반도정세는 정전협정을 환원복구할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교체할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조선반도만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동북아시아지역은 많은 사회력사적 및 정치군사적문제점들을 안고있는 매우 예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평화보장체계가 구축되여있지 않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바로 조선반도가 자리잡고있다.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의 증대와 긴장격화는 곧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며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이 조선반도를 중시하며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는것도 결국은 조선반도 주변대국들을 견제압박하여 저들의 지배밑에 끌어들이며 세계지배전략을 보다 용이하게 실현하자는데 음흉한 목적이 있다.

2012년 1월 미국방성이 발표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국방전략도 동북아시아의 대국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하여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2015년 1월 로씨야련방무력 총참모장이 로씨야의 주변나라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것은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지역안보체계, 평화보장체계결립에 대한 우려감의 표시이기도 하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이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그것은 곧 동북아시아지역을 포함한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랭전시대의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 조미사이에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것이다.

1975년 10월 제30차 유엔총회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한것은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려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의 반영이였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은 일촉즉발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로 보나 평화안보체계가 결여되여있는 지역나라들의 리해관계로 보나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최우선적과제로 된다.

3.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엄중한 국제불법행위

오늘 국제사회는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수 있는 중대한 발기이며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그러나 유독 미국만은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주장이 순서가 잘못된것이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먼저 비핵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고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우리 공화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제기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외면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선핵포기를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로 내세우는 미국의 주장은 평화관계수립의 일반적전제로 보나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의 발생근원으로 보나 천만부당한 궤변이다.

국가들사이의 평화관계수립의 일반적전제는 신뢰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원협약을 비롯하여 국가관계수립과 관련한 어느 국제법규범에도 정치군사적양보나 핵포기가 국가관계, 평화관계수립의 기초로 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들사이의 관계가 비핵국가들과의 관계에 비하여 더 평온한것이 국제관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자체도 비핵국가들에 대하여서는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못되게 놀아대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 비롯한 핵대국들과는 보통의 평화관계이상으로 상대하고있다.

오직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핵보유국이라는 리유로 평화관계를 수립할수 없다고 주장하는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체질적인 거부감과 병적인 적대시정책에 원인이 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문제는 비로소 새롭게 제기된것이 아니며 발생근원도 핵억제력에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보유하기 썩 이전부터 평화협정체결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기때문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전제로 내세우는 핵포기요구는 자위권행사와 관련한 국제법규범들에 완전히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강도적주장이다. 유엔헌장 제51조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를 비롯한 많은 국제법규범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자위권을 가지는것을 모든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 공인하고있다. 국가의 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제21조에서도 국제법에 부합되는 자위적조치에 대하여서는 국가책임을 추궁할수 없다는것을 규정함으로써 자위권행사를 합법으로 인정하고있다.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위험에 대처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한 자위적조치로서 국제법적요구의 견지에서 볼 때 철저히 합법이다.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시하다 못해 핵포기를 평화보장체계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들고나오는것은 저들은 해으로 위협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핵으로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적반하장격의 날강도론리가 아닐수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는 물리적수단이며 미국의 핵위협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될수 없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조선반도의 불안정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다가 임의의 시각에 불의적인 군사적공격으로 공화국북반부를 가로타고앉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력사적으로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성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유린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주권국가를 힘으로 위협하거나 침략하는것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여있는 엄중한 국제범죄행위이다. 1928년 8월에 채택된 전쟁포기에 관한 빠리조약 제1조에서는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것을 규정하였으며 유엔헌장 제2조에는 모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할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 이외에도 1933년에 채택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 1949년에 채택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초안과 그 이후시기에 채택된 국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언, 국제형사재판소창설에 관한 로마규약 등에서도 힘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미국의 책동은 조미사이에 체결된 쌍방조약들에도 배치되는 엄중한 국제불법행위이다. 미국이 《유효성》을 주장하는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조선반도에로의 핵무기반입은 금지되여있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외면하는 미국의 책동은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국제관례에 비추어보아도 비법적이다.

전쟁이 끝나면 교전당사자들사이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은 공인된 국제관례로 되여있다. 이것은 전투행동의 일시적인 중지를 규제하는 정전협정으로써는 평화관계의 회복이나 수립을 담보할수 없기때문이다. 실지로 제2차 세계대전후 전패국들인 도이췰란드와 일본에 대하여 성명이나 기타의 형식으로 전쟁상태를 종결시켰던 나라들은 그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것으로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하고 평화관계를 수립하였다.

제반 사실은 조미평화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발광하는 미국의 책동이야말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힘으로 위협하지 말며 침략과 전쟁을 금지할것을 규정한 국제법의 강행법규들과 저들이 확약한 쌍방조약상의무에 배치되는 극히 위험천만한 국제범죄이며 평화관계수립의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국제불법행위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조미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미국의 책동은 제도전복, 제도붕괴를 노린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근원이 있다. 미국이 아무리 조선반도의 《평화》를 제창하여도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침략적본질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거나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을것이며 수소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반대하는 책동의 범죄성을 인정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앞에 응당한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주체105(2016)년 1월 14일
평 양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만년담보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가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을 지향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은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고 조선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이 과학기술적성과는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조치의 일환으로 된다.

유엔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봉쇄 그리고 침략적인 군사적도발의 근원부터 뿌리뽑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유엔헌장은 매개 나라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코 말살하려고 하는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조선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협조를 발전시킬 용단을 내리는것이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또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굳건히 다진 조선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낸다.

* *

우리 공화국이 단행한 정정당당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전선이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조선에 대한 외세의 광란적인 비난을 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의 비핵화를 시종일관하게 주장하는 모든 반제조직들과 립장을 같이한다.

비핵화는 동등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다무적협상을 통하여서만 해결될수 있다.

핵보유를 특정한 국가에만 허용하는 그러한 국제법은 통할수 없다.

유엔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제재를 가하면서까지 그 나라에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느 나라에도 전쟁을 강요한적이 없다.

반면에 미국은 세계 각곳에서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다.

조선에 대한 제재를 운운하는 세력들은 모두가 핵보유국들이며 그 나라들은 오늘까지 수많은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자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선언하였음을 상기시킨다.

* *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지지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에파도르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문화련대성 에파도르 과란다협회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 온갖 부정의와 약육강식이 살판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오직 자기 힘으로써만 지켜낼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당당한 핵보유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정의의 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환영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당당한 핵보유국의 인민으로 된 긍지를 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앞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

영웅적조선인민 만세!

련 대 성 집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방글라데슈인민련맹과 방글라데슈자력갱생연구소의 공동주최로 7일 인민련맹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방글라데슈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먼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 랑독되였으며 이어 련대성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방글라데슈의 혁명적인민들은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만년담보를 마련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을 파멸의 운명에 몰아넣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영예와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인민이 막강한 핵억제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화 상 전 화 모 임 진 행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을 축하하는 영국진보정당, 사회단체들의 화상전화모임이 9일에 진행되였다.

영국신공산당,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 랑독되였으며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완전성공한 조선의 수소탄시험은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이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세계를 놀래우는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수소탄시험까지 성공시킨것은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면적실패, 총파탄을 선고한 력사적사변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의 핵억제력보유와 강화의 정당성을 론증하며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폭로단죄하는 여론전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주재 브라질특명전권대사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

로베르뚜 풀린 우리 나라 주재 브라질특명전권대사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10일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대사는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핵문제는 조선에 대한 비난이나 제재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기는 거의나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은 미국이 대화를 거부한 대가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는지는 미국 등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신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도 평화도 아닌 조선반도의 현 상태를 끝장낼것을 호소하고있다, 그러나 《북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수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있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평화협정체결문제에 대해 토의하기를 거부하고있다, 조선이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규탄받는 이스라엘의 살인만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7일 하루동안에만도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4명의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한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지역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인들 이스라엘군의 살인만행에 항의하여 시위

ㄱ-61008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